

# 20대 국회 개원 도내 의원들 새마음·각오

‘노력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를 키워드’로 첫 걸음

김광수, “노력하는 의원상”  
정동영, “정권 교체에 바친다”  
안호영, “40년 준비하는 시작”  
조배숙, “미래 희망 드리겠다”

20대 국회를 연 도내 국회의원들이 ‘노력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국회’를 키워드 로 첫 걸음을 내디뎠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도 다졌다.

먼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30일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가 시작됐다”면서 “이날 20대에 산적한 수 많은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일당백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와 지역 일정 균형을 위해 더욱더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 20대 국회의 시작에서 최고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초심의 마음으로 걸어가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들께서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함께 나누며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 첫날 국회에 왔다. 국회 본관 계단을 오르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전주시민에 대한 섬김의



20대 국회 첫날은 노동자들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을 찾아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소명이 제 몸속에 들어왔다”며 “나후된 전주와 전북을 발전시켜달라는 시민들의 소리를 지상명령으로 받들고 초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제였다면 지난 4월13일 저녁에 정권은 이미 교체됐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정권 교체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년 12월 새로운 정권 교체를 이룩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무장)도 “20대 국회 시작하는 첫날 의원총회에서 처음으로 발언했다. 초선의원으로서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하고 싶었던 말은 소신껏 말했다”면서 “국민의 대변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저를 선택해 주신 원주민무장 지역의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앞으로 4년이 다가올 40년을 준비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차근차근 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다선의원인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민생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조 의원은 “국회로 첫 출근하는 발걸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면서 “떠나 있었던 지난 4년의 세월과 선거기간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익산 시민들을 떠올리면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고 더 이상 대결의 정치가 아닌, 소통과 대화, 타협이 있는 상생 정치의 중심에 서서 익산 시민 여러분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20대 국회의원들은 곧 이어질 상임위원회 확정 등 20대 국회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신광영 기자

## 도 조례 공모에 참여해주세요 도의회 운영위, 6월 30일까지 접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가 도민들의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 신청을 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조례 공모를 추진 중이다.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는 도민들의 생활 속에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발굴, 조례로 입법화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다.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은 도민들의 공모전 참여를 위해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onbuk.kr)에 배너를 개설,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공모전 참여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실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수 조례안 6명에게는 의장상이 수여된다.

도의회 백경태 운영위원장은 “전북도의회에서 마련한 ‘도민 참여 조례 공모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치에 꿈꾸는 대학생이나 청년층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 정동영 “삼성 새만금 투자 진실 밝혀라”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주병)은 30일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사업 MOU 체결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1년 새만금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 투자하기로 전북도 및 국무총리실 등과 함께 MOU를 체결한 삼성그룹 측이 이를 백지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북도민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삼성그룹은 투자계획을 철회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전북도와 도민은 지금까지 삼성의 새만금 투자 계획을 믿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왔다. 삼성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새만금지역 투자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면서 “삼성사의 투자 MOU는 법적 강제성은 없는 것이지만 굴지의 대기업이 공식적 공개적으로 전북도민 앞에 한 약속이라는 점은 기업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비해 그 무게가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할 것이다. 2011년 MOU 체결 당시자인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삼성그룹 등 5개 기관은 MOU 체결 전후 과정에 대한 진실을 도민 앞에 상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이틀치 세비로 부실채권 123억 탕감 2525명 구제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들이 30일 123억여원어치 부실채권을 탕감해 생계형 채무자 2525명을 구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첫날 우리는 2,525명의 약성 채권에서 시달리던 분들의 채권을 소각하며 시작했다”며 “우리가 하는 작은 실천이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정치여야 한다는 다짐을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가계부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번 행사는 더민주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약탈적인 부실채권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전문가인 제윤경 의원은 “2,525명의 채무자들은 평균 487만원의 소형 생계형 빚을 가지고 있다. 10개 금융회사에서 시작한 빚이 11회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이분들 중 절반 가까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사회적으로 퇴출당한 상태”라며 “이런 식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도록 법률개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실채권 탕감 총선공약과 12일 ‘제20대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선인 집원이 이틀치 세비(각 66만5,000원)를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더민주 123명 의원이 기부한 세비 8,179만 5,000원은 주빌러은행(www.jubileebank.kr)의 조봉구 이사에게 전달됐다. 주빌러은행은 약성 채권시장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다.

이번에 소각되는 연체채권 97%는 원금 40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이며 모두 10~20년 이상 된 장기 연체 채권이다. 특히 123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실제 비용은 0.1%(1,230만원)이었다.

더민주는 20대국회에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휴혈채권금지법(민사집행법) 등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주 기자

## 반기문 방한 마지막날 “대권 추측 자제해달라”

### “정치적 행보와 전혀 무관... 회원국 방문 공식 일정의 일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 마지막날인 30일 자신에 대한 대권행보 관측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지난 25일 제주포럼 참석을 시작으로 이어졌던 6일간의 방한에서 정치적 행보를 이어 오면서도 정치적 발언을 삼가했다. 그랬던 그가 뉴욕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공식 행사에서 그동안의 모든 추측을 부인하며 발을 뺐다.

반 총장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석, 개회식 직후 마련된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방한 관련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 행보와 전혀 무관하게 오직 국제적인,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행사에 참여하고 주관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이번 방한 목적은 그야말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회원국을 방문하는 공식 일정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논란의 발단이 됐던 방한 첫날의 관훈클럽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유엔 사무

총장으로서 회의를 열기 위해 방한한 기회에 제주포럼이 같은 시기에 개최돼 참석할 것임을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관훈클럽에서 비공개로 얘기를 했는데 과대, 확대, 증폭된 면이 있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면 오늘부터(임기) 정확하게 7개월 남았는데 임기 잘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국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과대 해석하거나, 추측하거나 하는 것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나아가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데 대해 많이 추측하고 보도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가 제가 잘 알고, 제가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행보가 정치적, 대권 도전으로 비칠 것을 우려했다.

반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에서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는 70억명 전 세계인과 지구가 지속가능한 길을 가기 위한 이정표로, 야심 차고 폭넓은 비전이 채택됐다”며 “모든 회원국이 합의하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평가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바로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기후변화를 매우 중대한 전 세계적 의제로 만들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 지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부각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달성하는 데 쏟아부었다”며 “모든 것은 역사가들이 해설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평가는 역사의 뒤로 남기겠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끝으로 6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7시 30분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떠났다.

/이성주 기자

## 김희옥 추인 순조... ‘도로 친박당?’

### 친박계 추천 → 전국위원회 추인 쪽으로 가다

새누리당이 우려했던 ‘도로친박당’으로 회귀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친박계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포함, 비박계 위주 비대위 인선을 추진하려 했던 전국위가 무산됐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친박계가 적극 김 위원장을 후원하고 나선 결과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시작하며 김 내정자에 대해 “여러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시에 합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며 “참 중추한 인품을 가진 분이 다. 우리 당 혁신 논의를 포용할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공식 소개했다.

김 내정자는 공식 대변자이나 다름없는 이날 의총에서 “혁신비대위가 생기면 부

정적 의미, 계파, 분과 활동으로 당의 화합을 해하고 그런 연행이 있는 당 구성원은 윤리위를 통해 제명 등 강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제도화하고 운영할 방침”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다보니 의총에서는 김 내정자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 핵심 흥분종 의원은 “다들 박수치는 분위기였다”며 “(이번 전국위 예선) 참석해서 잘하겠다라는 분위기가 같다”고 김 내정자의 추인이 순조로울 것임을 예고했다.

이번에 김 내정자가 ‘무사통과’ 되는 데는 비박계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김무성 전 대표가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 정 원내대표는 최 의원, 김 전 대표를 불러 ‘3자회담’을 갖고 당 내분 사

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대표가 친박과 당 수습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유승민계를 비롯한 소수 비박계 인사들은 친박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내정자 인선에 동의하는 사실은 ‘네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김 내정자에 대해 “이번에 처음 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친박계 추천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된 것에 대해 불쾌하다”며 비판했던 수도권 비박계 중진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를 놓고 새누리당이 ‘도로친박당’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격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여론 관계자는 “최경환 의원과 같은 동향 출신에다 정치권에 대해 잘 모르는 김희옥 내정자가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나. 결국 ‘도로친박당’이 된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비박계도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성주 기자

## 더민주 도당, 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유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삼성 새만금 투자 양해 각서 무산 논란과 관련,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30일 더민주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2011년 투자협약 체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삼성이 전북도와의 협약을 백지화한 것은 대규모 투자로 지역발전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전북도민에 씻지 못할 상처를 안겨 주는 것이다”면서 “중앙정치와 공조를 통해 삼성의 새만금 투자를 다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광영 기자

## 도의회 환복위, 오늘 ‘옥시 불매운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31일 ‘옥시 불매운동’에 나선다.

도의회 환복위 7명의 의원과 환경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은 전주시 송천동 롯데마트와 중화산동 유명마트에서 옥시 불매 운동과 마트 관계자들 간 간담회를 갖는다.

이들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옥시제품 판매 중단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 이종걸 ‘반기문 시궁창’ 발언 공식 사과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반기문 총장의 대권 행보를 겨냥, ‘시궁창’ 발언을 해 논란을 산 데 공식 사과했다.

이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명예 손상일 뿐만 아니라 반기문 개인에게도 결코 명예롭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반 총장 개인을 공격한 것 같이 전달된 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과 퇴임 기념 오찬에서 반기문 대담론과 관련, “국민들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며 목숨을 퍼우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이 전 원내대표는 “현재 나를 포함한 4명의 전·현직 의원 지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재관받고 있다. 국정원 셀프감금사건이자 그 본질은 대선개입 공작 현장적발·증거보존 요구사건, 대선개입 증거인멸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권 행태를 보면 검찰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 너무 분명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재판이 정치탄압의 문제를 넘어서서 박근혜정권의 적법성에 관련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있지만 셀프감금사건이 아닌 정치적 문제까지 비화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